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탄력

생활SOC 복합화 공모 선정...국비 61억 확보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화순군이 추진하는 세대연대와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인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돼 탄력을 받게 됐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선정돼 국비 61억원을 확보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

라를 한 공간에 모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세대연대복합센터는 국민체육센터·가족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주거지 주차장 등 5개 지원 사업과 7개 지자체 사업 등 12개 시설을 갖추게 된다. 자체 사업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등을 지원하는 마을혁신지원센터 ▲출산·공동육아 등 원스톱 지원센터 역할을 할 엄마의 학교 ▲장애인과 노인복지 시설 ▲평생학습센터 ▲통합일자리교육센터 등이다.

화순군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상호 교류·소통·연대할 수 있는 세대연대와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화순형 생활SOC 사업 모델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화순 밀착형 생활SOC 정책 수립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추진 전략과 복합화 과제 등을 도출했다. 지난해 2월에는 '화순형 세대연대 프

로그랩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세대연대 거점 공간 구축, 세대연대 정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군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세대연대 정책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구충곤 군수는 "모든 세대와 계층이 교류·소통·연대하면서 복지·돌봄의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세대연대복합센터"라며 "주민들이 더 편하게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누리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발전소'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경 기자



이관직 작가가 스케치한 나주 금성관.

건축가 눈으로 바라본 도시 '나주' 이관직 작가, '도시여행자의 시선 : 나주' 11일 개막

나주가 품고 있는 역사 문화재 면면을 파란색 드로잉 스케치로 감상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관직 스케치전 '도시여행자의 시선 : 나주'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의학박람회'와 연계해 금성관에서 열린다. 나주는 과거 한반도 남부의 중심지로 작은 한양을 뜻하는 '소경'으로 불릴 정도로 전라도의 역사·문화·경제·예술 전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다. 나주읍성권역에는 금성관, 나주향교, 목사내아, 남파고택 등 목사고을 나주만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고즈넉한 한옥의 멋과 정취를 뽐내는 문화재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이 중에서도 지난 8월 국가지정문화

재 보물로 지정 예고된 금성관 정청은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정청과 대비되는 희귀성을 갖는다. 파란색 도시풍경 드로잉으로 유명한 건축가 이관직은 나주를 외부인의 시선에서 재조명했다. 전시전에서는 조선시대 한옥과 근대의 양육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공존하고 그 공간과 생활을 바라보는 작가의 새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도시의 얼굴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순간의 풍경들은 생활의 공간과 오래된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밀함을 매력적으로 그려낸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성 황룡강 노란꽃강의 발원지를 상징하는 유엔아이 가든.

장성 황룡강 '테마 가든' 인기 만점

노란꽃잔치 축제장 곳곳 설치, 방문객 호응
장성 황룡강에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가든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 노란꽃잔치에서 10억 송이의 가을꽃, 세 가지 주제의 테마정원과 함께 축제장 곳곳에 가든을 설치했다.

문화대교 건너편에 마련된 유엔아이(YOU & I) 가든은 세 개의 커다란 홀에서 꽃길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 조경이 인상적이다. 두바이 미러를 가든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성됐으며, 황룡강 노란꽃강의 발원지를 상징한다. 훗카이도 모리노 가든을 발전시킨 데

답는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주제로 설치됐다. 이밖에 황미르랜드 3만3,000여㎡에 조성된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 정원과 꽃길마다 마련된 이색 포토존도 눈을 즐겁게 한다. 장성군에서 해바라기는 '엘로우'와 '거버넌스'를 동시에 아우르는 상징적인 꽃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 황룡강을 찾으면 두바이 미러를 정원이냐 훗카이도 정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채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가든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광군은 영광청년회의소와 3,000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 구매 약정 협약을 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 청년들, 지역경제 살리기 앞장 청년회의소, 지역상품권 3천만원 구매

영광군은 7일 "영광청년회의소와 3,000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 구매 약정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영광청년회의소는 각종 행사 용품 구매, 격려금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권을 정기 구매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민준 영광청년회의소회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려 모든 주민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영광을 대표하는 청년 단체로서 조

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준 데 감사하다"며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영광사랑상품권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사랑상품권 구매 약정에는 9월 한빛원자력본부부를 시작으로 19개 기관·기업체가 참여해 24억6,000만원을 구매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담양군문화재단 '문화활동가포럼' 개최

'지역 현장 5가지 키워드' 주제
담양군문화재단이 최근 해동문화예술촌 문화활동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활동가 포럼을 개최했다.

유했다. 지금중 지역문화진흥원 이사장이 '지역이 있는 지역문화진흥계획'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고, '문화도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지역문화에 있어 민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선' 등의 소주제로도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하림 조선대

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포럼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한편, 담양군과 담양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해동문화예술촌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담양=장동원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광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영광군은 최근 영광사무소회의실에서 자원봉사단체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영광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준 자원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최정기 탐통증연합의원 원장 장학금 기탁

최정기 담양 탐통증연합의원 원장은 최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담양군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최정기 원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 소년들에게 컴퓨터와 가방을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마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흥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간담회

장흥군은 최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2인1조를 이뤄 어린이집의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을 분야별 지표에 따라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군은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3월 부모모니터링단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장흥=이육현 기자